

2022학년 고입 전형 일정은 언제 나오나요?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는 중3 쌍둥이 학부모입니다.
 특목고와 일반고 진로를 앞두고 아이들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 중인데요.
 올해는 전형 일정들이 다소 늦어지는 것 같네요.
 2022학년 고입 전형 일정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_ 김민영(49·서울 양천구 목동)

6월 영재학교를 시작으로, 과학고와 특성화고가 포함된 전기 고등학교는 9월부터 외국어고·자사고·일반고가 속한 후기 고등학교는 12월부터 전형이 실시됩니다.

6월 1일 영재학교 입학 원서 접수로 2022학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작년 11월 교육부의 '영재학교·과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에 따라 해당 학교들의 전형 기간이 축소됩니다(영재학교 3~8월 → 6~8월, 과고 8~11월 → 9~11월). 이는 응시 학생들의 정상적인 중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22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고와 특성화고 등이 포함된 전기 고등학교는 9월부터 입학 원서를 받아 10~12월 중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외고·자사고·일반고 등이 속한 후기 고등학교는 12월 중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나 선지망 후(추첨) 배정 등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맞춰 학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의 한시적 봉사 활동 기준을 올해도 적용한다. 현 중3은 중2~3 시기는 모두 만점 처리하고, 중대만 개인별 봉사 점수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

구분	학교 계열	입학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일
영재학교	-	6월 1일	8월
전기 고등학교	과고·서울체고·예술계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9월~12월	10월~12월
후기 고등학교	외고·국제고·자사고·예술·체육 중점학급 등	12월 8일(수)~10일(금)	12월~22년 1월
	일반고	12월 8일(수)~10일(금)	2022년 1월 7일(금) *배정학교 발표 2022년 2월 3일(목)

MORE TIP

학교별 모집 요강은 입학 전형 3개월 전 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고는 6월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는 늦어도 9월 초 모집 요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목·자사고 등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재 이지원 리포터 judyee@naeil.com

특정 과목의 등급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지정한 대학이 있나요?

올해는 수능 수학적문·이과 통합으로 인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특히 인문 계열 학생은 수학 등급이 낮아져 최저 기준을 맞추기 힘들 거라는 얘기가 들려 걱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이외에도 특정 과목의 등급을 따로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지요?_ 최혜영 (49·서울 서초구 잠원동)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전형에 따라 영어 등급 기준을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영어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반영할 때, 대부분의 대학은 영어를 포함해 충족 여부를 가립니다. 하지만 영어에 일정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주요 대학 중 연세대 국제형(국내고)이 1등급을, 활동 우수형이 3등급을 지정했습니다.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2등급을, 학교장 추천 전형은 3등급을 요구합니다.

수시 모집 영어 등급 기준 지정 대학	
최저 학력 기준	대학
1등급	연세대(서울, 국제형-국내고)
2등급	강원대(의예, 수의예), 경상대(영어교육), 고려대(세종, 논술/지역인재), 동국대(경주, 교과, 의예/한의예), 성균관대(논술), 연세대(미래)(의예과), 전북대(공공인재)
3등급	성균관대(학교장 추천), 안동대(영어교육), 연세대(서울, 활동 우수형)

올해 수능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확률과 통계> 선택군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인문 계열 희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영어 등급 기준을 별도 지정함에 따라 이들 대학 지원자는 국어·수학·탐구 중에서 최저 기준을 맞추고 영어 등급도 충족해야 합니다. 삼선대학입시연구소 전천석 소장은 “영어 등급을 따로 명시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더러 있겠지만, 연세대나 성균관대를 지망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지정된 영어 등급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저 기준을 의식하기보다는 전력을 다해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MORE TIP

한국사도 수능 최저 기준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학업 우수형의 인문 계열이 3등급을 요구합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학업 우수형 자연 계열, 연세대 국제형(국내고)과 활동 우수형, 서강대 교교장 추천/논술 전형,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논술 우수자 전형, 중앙대 지역 균형/논술 전형,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논술 전형, 동국대 논술 전형, 홍익대 학교장 추천/학교생활 우수자/미술 우수자/논술 전형이 4등급을 지정합니다. 건국대 KU 지역 균형/KU 논술 우수자 전형, 경희대 고교 연계/네오르네상스/논술 우수자 전형은 5등급을 요합니다.

취재 이지영 리포터 easygoi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